베델교회 BETHEL CHURCH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교회학교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0–1.5세) / 본당 1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1.5–3세) / 본당 2층 유아부실**
  9:00AM, 11:00AM
- **유치부(3세–PreK) / 할렐루야채플**
  9:00AM, 11:00AM
- **K–1(킨더가든–1학년) / 임마누엘채플**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HS) / 찬양채플, 비전채플**
  9:00AM(찬양채플),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HS) / 비전채플, 비전센터109호**
  9:00AM(비전채플), 11:00AM(비전센터109호)
- **한어중고등부(CIM) / 찬양채플**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조이채플**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 Presider 예배 인도자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 사도신경 ..... Altogether 다같이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기뻐하며 경배하세(찬13/새64장)

기도 Prayer ..... Altogether 다같이
1부/박지학 집사 2부/백영만 장로 3부/배진용 집사 4부/김도윤

찬양(1부) Anthem .....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주의 영광(G. F Handel 작곡)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 Media 방송실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호세아(Hos.) 7:1-16..... Altogether 다같이
4부/요한복음(John) 1:1-18

말씀 Message .....1, 2, 3부.....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LAFC(8) 하나님의 신음소리

4부..... Rev. Solomon Kang 강솔로몬 목사

Solus Christus(1)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적용찬양 Song of Response ..... Altogether 다같이
1,2,3부/죄짐 맡은 우리 구주(찬487/새369장),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Dedication and Closing .....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여전히 Jesus Alone, 말씀하시면

*축도 Benediction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하필이면'을 '호박 넝쿨채'로

'Of All Things' to 'Pumpkin Vine'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요즘 자라가는 손주들을 보면, 그냥 행복하고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손주들이 나에게 주는 선물 하나 없지만, 그들의 입술 속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의 마음에 웃음꽃을 피게 합니다. 자기들 엄마 아빠와는 영어를 하느라,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도 영어만 하는 손주들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엉성한 한국말을 하며 배꼽 인사를 하는 것을 보면, 어느새 저의 마음은 천국에 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장영희 교수의 <내 생애에 단 한 번>에세이에 다시 손이 갔습니다. 한 번 저의 설교에도 언급되었던 미국에서 자란 조카와의 에피소드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국말이 서툰 조카가 장교수님께 선물을 받고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한 말이 '하필이면 이것을 저에게 주십니까? 감사합니다.'였다는 것입니다. 기대치 않은 큰 선물을 받고 아마도 'how come?' '어찌된 일입니까?' 놀라움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 엉뚱한 '하필이면'이라는 표현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순간은 웃어넘겼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조카의 감사 표현을 통해 우리 어른들이 불평할 때 자주 쓰는 '하필이면'이 변화하여 감사의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겠다는 작가의 글이었습니다.

저는 장영희 교수의 말처럼 '하필이면'이 중생(born again)하면 우리의 삶이 거듭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격 없는 자가 선물을 받았을 때 튀어나온 표현이 '하필이면'입니다. 즉, 거듭남의 비결은 '내가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존 뉴턴 목사님이 쓰신 찬송가 Amazing Grace 찬송의 가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that saved a wretch like me'입니다. 나는 정말 자격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새 출발을 향한 걸음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감사가 그 새 걸음에 동반자가 됩니다.

이 비결은 어려운 것을 선물로 받았을 때 그 빛을 더욱 강하게 발합니다. 고난을 받았을 때, 나 같은 자격 없는 자에게 '하필이면' 주신 고난 때문에 감사가 수반됩니다. 고난이 죄인에게 주신 벌이 아니라 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복스러운 며느리를 보았을 때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왔다고 하듯이, 고난이 '하필이면' 나에게 호박 굴러 들어오듯이 온 것이기에 감사할 수 있을 때 진정 우리의 삶은 거듭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대강절을 맞이해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계절입니다.

Watching my grandchildren grow up brings me such happiness and makes my heart full. Although I don't get gifts from grandchildren, but each word that comes out of their mouths makes my heart bloom with joy of laughter. Watching my grandchildren, who can only speak English to their mom and dad, and to grandfather and grandmother, bowing to their belly button and say 'thank you' in broken Korean, my heart is in heaven.

I reached for Professor Younghee Chang's essay book [Only Once in My Life]. I read it a long time ago. I had once referred his story in my sermon. It is a story about an episode with his niece who grew up in America. After receiving a gift from Professor Chang, she expressed her appreciation in broken Korean like this, "Of all things, are you giving me this? Thank you". Having received an unexpected gift, she probably wanted to express her surprise like 'how come' but instead, she chose the expression 'of all things.' That moment passed with laughter, but thinking through carefully, the author realized that the expression 'of all things', which is commonly used by adults when complaining, can actually be changed to expression of gratitude.

I believe, like Professor Younghee Chang said, when 'of all things' is born again, our lives can be changed. When undeserved receives a gift, the expression that pops out is 'of all things.' The secret to born again begins with realization that 'I am not worthy.' The lyrics to a hymn Amazing Grace written by John Newton starts "Amazing grace... that saved a wretch like me." When you realize that you are an undeserving sinner, your step toward a new start begins. Then, gratitude will become your companion in your new steps.

The secret is that, when you received something difficult as a gift, it makes the light shine brighter. When suffering is received, I am grateful for the suffering 'of all things' that was given to an unworthy person like me. We must realize that suffering is not a punishment for sinners, but a reward. When we are blessed with a new daughter-in-law, we say the pumpkin rolled in with vine. When we can be thankful that "of all things" suffering came like a pumpkin rolled in, then we can live a born-again life. In this great celebration, "of all things" Jesus came to us, the unworthy, as Emmanuel. It is a season where we must give thanks.

주일 설교 시리즈: 호세아 강해

LAFC-8

LOVE ALWAYS FINDS CHRIST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하나님의 신음소리

(호 7:1–16)

적용하기 말씀 변화 열매

1.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을 계속 고발합니다. 인간적으로 정이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하나씩 정리해 봅시다.

1) _____에 생각하지 않는 죄(2절)

2) 지도자를 _____는 죄(3절) (참고/ B.C 931–722)

3) 화덕과 뒤집지 않은 _____(4–8절, 참고/ 계 3:15, 창 4:7)
그 의미?

4)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_____(9절)

5) 어리석은 _____(11절)

2. 13–16절은 사랑을 베풀고도 거부당한 하나님의 신음소리 같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신음소리가 남기는 여운은 무엇입니까?(참고/ 합 3:19, 시 18:1–2, 요일 1:8–9)

3. 크리스마스에 무슨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정 떨어진 우리 죄인을 위해 오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찬양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 **적용찬양:** 죄짐 맡은 우리 구주(찬487/새369장),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성례 간증
세례/입교자

삶을 주님께 드리는 고백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죄인이며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의심 없이 믿어지는 것이 감사합니다. 올해 부모님의 권유로 로마서 8장 전체를 암송했는데,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확신을 얻었고, 2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을 통해 저의 구원이 우연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주어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어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입교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번에 입교를 받으면서 교리를 배우고 제 신앙을 더욱 확실하게 고백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참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신앙을 바탕으로 저의 믿음의 홀로서기를 해서 스스로 기도와 말씀 묵상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배다윗(8학년)

My life before personally meeting Jesus Christ was just having fun and goofing off in church, not viewing it as God's house. I always thought I was going to make up for it later in my life. As I grew up, I started to take church more seriously, understand more of the messages, and decided to go to a retreat on Catalina Island. There, I felt more genuine before God, and that was where I personally felt that God was calling me to come back to Him. I prayed and asked Jesus to truly come into my heart. After I met Jesus as my personal Savior, I was changed. I started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sermons, and I found myself reading the Bible more often. I decided to refocus on God, longing for the passion I had for Him after the retreat. Even with the new pressures of middle school, I hope to continue to meet God on an even deeper level.

Christopher Song(7학년)

미국 대학원에 유학생으로 와서 믿음도 없이 오직 도움을 받기 위하여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17년 후 올해 저는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로 죄를 씻고 세례를 받아 다시 태어났습니다.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예비를 해 주셨는지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구약과 신약이 있듯이, 제 인생도 우리 주 예수가 들어온 전후로 확연하게 나누어졌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의 고난의 무게가 무거워 현실이 어두울지언정, 제 인생 가치의 무게는 귀하게 묵직하여 어둡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기들이 태어나면 머리 다치지 말라고 씌워주는 머리막처럼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막이 씌워져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두려운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뿐입니다. 고난을 주시면 내가 풀어보라고 주시는 훈련을 위한 문제이구나 느끼며 감사하여, 이제는 제 인생에 어떤 어드벤처를 꾸려 주실지 기대와 설레임으로 하루하루를 임합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께서도 꼭 이 기쁨과 설레임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진희

예전의 저는 뭐든 제 힘과 생각으로만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 안에 공허함과 외로움이 깊어졌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했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에 나와 예배와 수양회를 통해 많은 은혜와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이든 주님은 항상 나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시기 위해 이 땅에 만드셨다'라는 말씀이 제 마음을 크게 울렸습니다. 그 말씀에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이나 은혜, 회개가 무엇인지 잘 몰랐지만 예배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점점 제 마음이 열리고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세례는 단순한 교회 행사가 아닌 제 삶 전부를 주님께 드린다는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저를 붙잡아 주시고 세례의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저와 함께해 준 교회 공동체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채지우(예삶)

훈련 간증
베델 기도학교

아버지와 대화하는 방법

오늘 이 종강 예배에 서니, 개강 첫날이 떠오릅니다. 사실 저는 기도학교라고 하길래 '기도에 대한 학문적 강의와 스터디를 하는 곳 이겠지' 하고 기대하며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옆 집사님께 '집사님, 저 잘못 온 것 같아요. 밥만 먹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집사님도 같은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나가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 대표기도 중 갑자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끝나 눈을 떠보니, 이미 옆 집사님은 사라지고 저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기도학교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꼭 '호랑이 교장선생님' 앞에 앉아 있는 듯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하나님께 내 뜻을 조심스레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아야 할 것 같은 딱딱한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니 기도가 쉬울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과정을 통해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 막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는 할머니가 끓여주시는 닭죽입니다. 막내가 "할머니, 닭죽 먹고 싶은데 해주실 수 있어요?" 하고 전화하면, 어머니의 음성에는 이미 미소가 가득합니다. 손주를 향한 따뜻한 사랑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호랑이 교장선생님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의 목소리만 들어도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어떤 할머니의 사랑보다도 더 큰 마음으로 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자 기도가 조금 쉬워졌습니다. 이제는 딱딱한 보고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대화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 입을 열면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집니다.

저에게 기도학교는 기도 방법을 배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아직은 서툴지만, 앞으로도 날마다 아버지와 대화하는 기쁨 속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격려해 주신 팀장님과 모든 집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한 시간들, 모두 큰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대령 집사

모이면 산다! IN Jesus

번개셀을 아시나요?

번개셀은 2월 2일 주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번개셀의 뜻은 베델교회에 등록 교인으로 교회 출석은 하고 있지만 셀에는 속하지 않은 분들이 이제는 셀에 들어가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 브릿지 역할을 하는 셀 입니다.

저희는 조이셀과 번개셀을 함께 하고 있는데, 조이셀 식구들이 번개셀을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번개셀에 오신 분들이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마음의 문을 열어가는 모습을 보며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몇몇 가정은 셀로 편입되어 신앙생활을 잘 이어가고 있고, 어떤 형제가정은 연초에 우리 교회에 출석하여 부활주일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지금은 부부가 양육반에서 양육을 받으며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며 저희가 은혜를 받습니다.

또 한 가정은 뉴욕에서 이사 와 교회에 아는 분들이 없는 가운데 유방암 판정을 받았지만, 번개셀에 와서 셀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며 지내는 가운데 완치 판정을 받아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셀모임에서는 초대교회처럼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서로 나누며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조이셀과 번개셀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마음을 나누는 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롬 12:15-16) '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는 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행 2:46)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행 2:42) 초대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서로 나누었던 모습이 바로 번개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시 133)

김두환 장로

선교 후기
힐링 킹덤

하나님의 천국잔치

11월 11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에서 탈북민 자매님들을 위한 힐링킹덤이 열렸습니다. 힐링킹덤은 험난한 고난을 겪으며 자유를 찾아 한국 땅에 온 탈북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천국 잔치입니다.

많은 탈북민들이 죽을 고비를 넘기며 자유를 찾아 한국에 오지만, 정착 과정 중에 만나는 낯선 환경과 문화적 장벽,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삶을 지탱하지 못하고 도리어 두려움 가운데 죽음을 택하는 이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다"라고 고(故) 손인식 목사님께서 시작하신 사역입니다. 지금은 손 사모님이 목사님의 마음을 이어받아 팬데믹이라는 어려움을 뚫고 계속 이어 가고 있으며, 벌써 12차를 마쳤습니다.

12차 힐링킹덤은 42명의 참가자와 여러 교회에서 모인 백여 명의 봉사자가 함께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12차에는 20여 명의 베델 식구들이 일부러 시간을 내어 참석하였고, 김한요 담임목사님께서 다섯 번에 걸쳐 전하신 설교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결단하며 예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힐링킹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을 세워 가고 계십니다. 많은 탈북민 자매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며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학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종으로, 어떤 이들은 사회에 필요한 일꾼으로, 또 어떤 이들은 기도자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알지 못하는 혹독한 아픔은 그들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였고, 북한을 마음에 품고 아직도 헤어져 있는 형제 · 자매와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통일한국을 위해 에스더의 심정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처럼, 속히 저 악한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탈북민 자매들과 함께 북한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힐링킹덤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손윤미 권사

교회학교 간증
초등부 교사

Guiding Young Hearts in Faith

As I reflect back to 2025 as a Sunday school teacher for 5th boys, it had ups and downs. I was hesitant about teaching but it is not about just teaching. Even though I am with them for 30 minutes each Sunday, God showed me the importance of the role. I was encouraged when they memorized the bible verse. They were engaged when I was asking questions about the lesson. I feel blessed each week to serve them. I see them grow more Christ-like when they understand a difficult bible story. I do feel God's presence during that time. I pray that they can continue to know more about God and truly believe Jesus as our Savior.

Mitch We 집사

This past year at Bethel Upper Elementary, has been a true gift. My Grade 5 class (Olivia, Isabelle, Katelynn, Skylar, and Clara) were hilarious, dedicated, and simply amazing. They brightened every Sunday, and I'm thankful for each moment we shared. Though they've moved on to BYM, I pray for their continued spiritual growth. With my new Grade 4 class, I look forward to sharing, learning, and growing together in a fresh chapter.

All our teachers are grateful for the fellowship and community shaped by the leadership and creativity of P. Jungyeon, Albert TJnim, T. Illan, and T. Rachel. Their hearts and vision make Upper Elementary a joyful blend of generations, united in uplifting God through our work.

Ele Cha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 **주성필 목사**
충성/훈련/BCA: **정승락 목사**
소망/선교: **이충경 목사**
기쁨/찬양/전도: **박경철 목사**
Joy/화평/섬김: **박성권 목사**
사랑/QT: **조태헌 목사**
은혜/예배: **서동민 목사**
믿음/공동체: **조동현 목사**
온유/말씀/QTin: **배홍수 목사**
BGC 담임: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BGC(Young Adult): **Daniel Yoon 전도사**
일본어/수요예배/기도: **손용주 목사**
예삶채플(총괄): **강솔로몬 목사**
예삶채플: **공병주 전도사**
예삶채플: **이형석 목사**
예삶채플: **최요셉 인턴 전도사**
영어고등부: **김한나(Hanna) 전도사**
교회학교(총괄)/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목사**
영어중등부: **이지원(Cindy) 전도사**
한어중고등부: **이성우 목사**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K-1: **정가영(April) 전도사**
유치부: **정티나 목사**
영아부/아기학교: **최미정 전도사**
소망부: **김재은 전도사**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병원심방: **김현일 협동목사**
상담: **황성철 협동목사**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지휘자: **김형직 목사**
솔리스트: **최정원**
뮤직디렉터: **정봉화**
반주자: **한현미, 박정연**
예삶 워십: **조요셉**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조주은**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인현미, 이미옥**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방송실: **민윤기, 김앤드류(인턴)**
목회지원/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컨텐츠 디렉터: **최종형**
음향: **강창위, 한 진**
디자인: **박선경**
웹/IT: **김정아**
수양관: **오춘란**

사역광고

성탄 감사예배

성탄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셨다"는 이사야 9:6의 약속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이어져 온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놀라운 사랑을 기쁨으로 기억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아기로 세상에 오신 순간, 어둠 속에 빛이 비추었고 그 빛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밝혀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 감사예배는 우리 주를 메시야로 다시 마음 깊이 새기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자리입니다.

올해 성탄예배는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로 준비되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함으로써 성탄의 참된 기쁨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Bethel Grace Church와 함께 드리는 연합예배를 통해 언어와 문화를 넘어 하나의 가족처럼 드리는 감동을 경험하며, 하나님 안에서의 연합을 더욱 깊이 볼 수 있는 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배 후에는 교회학교 부서가 준비한 발표와 다양한 순서가 이어져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는 따뜻한 축제가 펼쳐집니다. 1세대와 2세대가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다시 확인하며, 우리가 진정 하나의 공동체임을 느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새 희망과 평안을 채우길 기도합니다. 올해 성탄절,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시: 12월 25일(수) 오전 10시**
▶ **장소: 베델교회 본당**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12월) |
12/14: ①부-송기평 ②부-백권기 ③부-변 진 ④부-김수빈
12/21: ①부-손석환 ②부-오세영 ③부-송용훈 ④부-김에스더
12/28: ①부-안경수 ②부-안지호 ③부-왕동원 ④부-김지윤

헵시바 토요새벽 대표기도(12,1월) | 12/13: 김흥순 12/20: 박관규 12/27: 박기흥 1/3: 엘새

강단꽃(12월) | 12/7: 엄금연, 이지민 12/14: 김호경, 왕예진, 이수민 12/21: 윤주원, 이루이, 한보영

[의무실(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최지수(치과), 간호사-이청하 다음주 | 의사-김혜수(소화기내과), 간호사-이혜경

선교후원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 장주원(장한나), 이희숙,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BAM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유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브라질 |** 브레노(에스더)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김인성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창의적접근지역 | 길예평(길진명), 이상훈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A, GP미주본부, AU&W,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푸른초장의 집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문서선교 |** 기독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포도헌금** 오늘(12월 7일)은 포도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포도헌금은 베델의 다음세대를 위해 헌신하시는 교회학교 교사들을 격려하기 위한 헌금으로서 전 교인이 각 10불씩 헌금하시면 됩니다.

◆ **교인 총회** 12월 13일(토) 오전 7시 30분 토요 헵시바 예배 후, 본당에서 교인총회로 모입니다. 만 18세 이상 세례(입교) 등록 교인이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 **교사 감사 만찬** 한 해 동안 다음세대 자녀들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여 주신 모든 교사분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교사 만찬을 준비하였습니다. 모든 교사들과 TA, 기타 손님들을 초대하오니 함께 축하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일시/장소: 12월 7일(주일) 오후 4시, 체육관

◆ **수요저녁예배**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과 뜨거운 찬양으로 한주의 중심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일시: 12월 10일(수) 저녁 7시 30분
문의: 김종학 집사 (949)285-9408
***QR코드를 스캔하셔서 함께 부를 찬양을 미리 만나세요!**

◆ **신임 임직자 주행** 교인총회 최종 인준 받으신 2026년 신임 임직자(사역장로, 안수집사, 사역권사)께서는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장소: 12월 19일(금)-20일(토), 체육관
사역 참관: 12월 21일(주일) 오전 11시. 교회학교 체크인 부스 앞에서 모입니다.
***참석을 못 하실 경우는 보강수업을 받게 됩니다.**

◆ **임직 예배** 연말 제직회와 교인총회를 통하여 선출된 2026년 신임임직자의 임직예배가 있습니다.
일시/장소: 12월 21일(주일) 오후 4시 30분, 본당
강사: 노창수 목사(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

◆ **베델한국학교 2026년 봄학기 일반 등록 및 교사 모집 안내**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베델한국학교가 2026년 봄학기 일반 등록을 시작합니다. 신입 교사 모집도 함께하고 있사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학기 일정: 2026년 1월 24일-5월 16일(16주, 4월 4일 부활절 휴강)
시간: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오후 1시
학습 내용: 영성 훈련(QT), 한국어, 한국 문화, 역사 등
신청 대상: 만 5세 이상부터 K-12학년 (2025년 9월 1일 기준, Kindergarten 이상)
등록 기간 및 등록금: 2025년 12월 6일(토)-20일(토), $430
등록 사이트 : https://koreanschool.bkc.org/
문의: 윤주원 장로 (949)892-9516, koreanschool@bkc.org

◆ **베델교회학교 웹사이트 재단장 오픈** 베델교회학교 웹사이트가 새롭게 단장하여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교육부서에 대한 최신 정보와 자료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방문 부탁드립니다.(https://churchschool.bkc.org)

◆ **상담해 드립니다** 개인 생활과 가정, 자녀 문제 등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매주 금요일 상담 협동 목사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회 행정사무실이나 홈페이지, 큐알 코드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박성권 목사 (718)490-9931

◆ **헌금 명세서** 2025년도 헌금 내역이 교적에 기재된 집 주소로 발송됩니다. 주소 변경이 필요하신 분은 헌금 봉투 아래 주소 변경란에 기재해 주시거나 교회 사무실로 변경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교회 사무실 (949)854-4010, bethel@bkc.org

◆ **QTin 영문판(12월) 판매** 12월 월간 영문 QTin 교재가 실내 카페에서 판매 중입니다. 내년 1월호부터 한글 큐티인이 월간으로 전환되며 내년 1월 10일(토)까지 홈페이지 온라인 구매에 한해 정기 구독 할인을 진행 중이니,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www.qtin.org)
문의: 김언조 집사 (714)333-6724

◆ **2026년 강단 꽃 봉헌** 2026년도에 예배실 강대상의 꽃을 각 가정의 감사 혹은 추모로 봉헌하실 성도님께서는 교회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교회 사무실 (949)854-4010

◆ **축하해 주세요**
오태환 집사/장해인 집사 가정에 아들 오시유(Adon)가 지난 12월 2일(화)에 태어났습니다.

◆ **위로해 주세요**
- 故 최송옥 성도님(장선 권사의 모친, 장덕명 집사의 장모)께서 11월 27일(토)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 故 이 설 성도님(이인선 집사의 딸)께서 12월 5일(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교회학교 주중 모임 안내

- **AWANA(어와나):**
  - Sparks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K-2학년)
  - Truth&Training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3-5학년)
- **중.고등부:**
  - BYM(영어중고등부) / 금요집회 오후 7시 30분, 비전채플
  - CIM(한어중고등부) / 금요집회 오후 7시 30분, 샬롬채플
-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시 30분, 한국학교 각 교실
- **아기학교:** 수요반(15-48개월) 오전 9시 45분, 할렐루야채플

주중 예배 및 기도모임 안내

- **주중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시 30분, 본당
- **헵시바 새벽기도회(토):** 오전 6시, 본당/온라인
- **베델 수요저녁예배:** 오후 7시 30분, 본당
- **예삶금요예배(청년):** 오후 7시 30분, 임마누엘채플
- **주일 레위기도 모임:** 1-3부 예배시간 중, 컨퍼런스룸

베델뉴스 편집위원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김경자 권사
- **기 자:** 강정훈 집사, 강은혜 집사, 권두경 집사, 김규현 집사, 김인경, 김유미 권사, 배민정 집사, 박정원 집사, 박혜성 권사, 안정선 권사, 이혜림 집사, 이소영 권사, 황수정 집사
- **사진 기자:** 박상곤 장로, 최호경 집사 차규양 장로
- **번 역:** Grace Yi 전도사

비전 주차장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HOSEA LECTURE

LAFC-8

LOVE ALWAYS FINDS CHRIST

Sunday Worship Sermon Note Speaker: Rev. Bryan Kim

God's Groaning
(Hosea 7:1–16)

Apply to Life

1. God continues to report on Israel's corruption. Humanly, he probably has fallen away. Let's organize what each looks like.

1) Do not realize _____ evil deeds (v.2)

2) They delight the king _____ (v.3) (Ref: B.C. 931-722)

3) Oven whose fire not stirred _____ (vv.4-8, Ref: Rev 3:15, Ge 4:7)
What is the meaning?

4) His hair is sprinkled with gray, but _____ (v.9)

5) Easily deceived _____ (v.11)

2. Verses 13-16 sound like God's groaning as he is rejected despite his love. Let's read it together slowly and try to understand God's heart. What is the lingering effect of God's groaning? (Ref: Hab 3:19, Ps 18:1-2, 1Jo 1:8-9)

3. What plans are you making for Christmas? Let's take time to repent and praise before the Lord who came for us sinners who have fallen away.

English translations for worship services via Discord

■ **Song in Response:**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Hymn 369), Yearning for God's Love